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추수감사절 메시지

##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채워집니다



손달익 담임목사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북한의 도발,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근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며 깊이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절의 성서적 유래는 구약시대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 23:16)”는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거둔 곡식과 소산을 저장한 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토양과 알맞은 기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절기였습니다. 감사절의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은 무수한 어려움을 뚫고 간신히 북미 대륙에 도착했지만 이후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속에서 절박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청교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다음 해인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으로 오게 하셔서 감사, 엄혹한 땅에서 풍요로운 곡식을 수확하게 하셔서 감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thanksgiving day’ 즉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행위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헌신과 예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 3:9)”고 하였고 예수님은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살전 5:18) ‘범사’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감사하지만 저것은 불만인 태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과 시험이 있고 실망과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모든 시간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 -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 - 찬양예배 시 임마누엘찬양대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진행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린다.

아울러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임마누엘찬양대의 추수감사찬양 'GLORIA! GLORIA! GROLIA!'로 지휘 유태왕 집사, 오르간 전지희 선생, 피아노 이주희 선생, 팀파니 윤주일 집사가, 특송에 서주희 선생과 이상규 선생이, 곡 중 솔로로 소프라노 장하영 선생, 알토 주하민 선생, 테너 오세원 선생, 베이스 정주원 선생이 담당하며 해설은 권소희 권사가, Classic Arts Brass가 특별출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특히 오늘 정관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 교인 공동의회 회원 명부 공람과 함께 정관개정안과 위임장 양식이 배부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1주년 감사주일이며 정관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가 찬양예배 후 열린다.

모든 성도들이 공동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추수감사절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정관개정 공동의회 안내

당회는 지난 11월 정기당회에서 현재까지 별도 규정형태로 시행 중이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고 교단헌법 개정예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칭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처리하였다.

당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 주 교회 설립 주일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번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등록 후 1년 이상 되고, 투표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세례(입교 포함)교인**이다.

특히 평상시 공동의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출석 정족수 없이 회집된 교인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왔지만 이번 정관개정 공동의회는 불필요한 법적시비에 또다시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법상 요구되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시키려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은 본당 로비에 설치된 각 교구별 테이블에서 자신과 가

족들이 기재된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열람하여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함께 배부될 정관개정 초안과 첨부되어 있는 전후정관 주요부분 비교표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시라도 다음 주 공동의회 당일 교회예배 출석이 어려운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개정안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에 위임가족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음 주일 각 교구별 테이블에서 본인의 투표지와 위임한 가족의 투표지를 함께 수령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공동의회는 오후 4시 최종 투표를 마감하고 찬양예배 종료 후 통과여부를 발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공동의회에 서울교회 교인명단에 있는 재적교인 전체가 한분도 빠짐없이 직접 또는 위임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법적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재창립 하는 계기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 대림절 묵상집 출간



대림절  
묵상집

서울교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2022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대림절 묵상집을 발간하였다.

이 묵상집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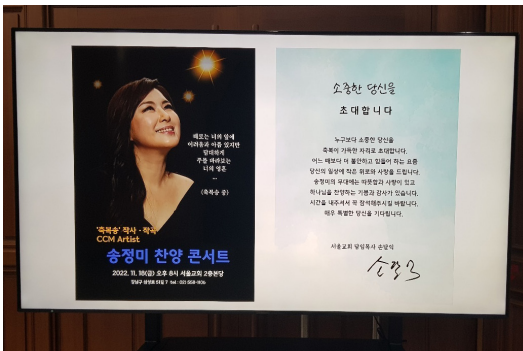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 스데반회, 교회를 위해 물품 기증



스데반회(회장 : 백도환 집사)는 교회에 귀한 물품을 기증하였다.

먼저 소망부의 오래된 커튼을 교체하였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86인치 TV모니터를 기증하였다. 86인치 모니터는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새가족부실에 보관하며 사명자대회에 바로 투입되어 사용 중이다.

## 2022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월 21일(월) - 11월 26일(토), 새벽 5:00 - 6:00

강사 : 서범석 목사(주복교회), 송용원 목사(장신대)

교회 설립 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2022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마지막 주인 11월 21일(월)-26일(토)은 특별새벽기도회로 새벽 5시에 모여며 강사로 주복교회 서범석 목사와 장신대 송용원 목사가 담당한다. 또한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된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서범석 목사  
(주복교회)



송용원 목사  
(장신대)

## 2022 성경암송대회

지난 11월 12일(토)와 13일(주일) 2022 성경암송대회가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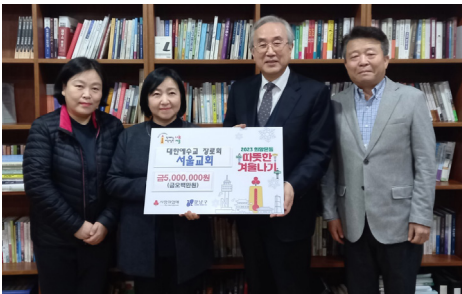
11월 12일(토)에는 일반부가, 13일(주일)에

### - 2022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 -

- **유아부**  
대상 : 정혜슬 / 사랑상 : 박시현 / 믿음상 : 오유준 / 소망상 : 최수아 / 장려상 : 박지안 백설아 심기연 안서은 양승혜 오주빈 임누리 최민성
- **유치부**  
믿음상 : 이유빈 이채원 이린하 길리배 이로아 / 소망상 : 차시온 김제인 김서환 심기찬 최아준
- **유년부**  
소망상 : 정혜윤 오수빈 조하음 유하민 한세희 임시우 김이환 이하은 이하룬 김채운 권세준
- **초등부**  
소망상 : 한예승 배은준 오선아 김재령 김주아 임하울 조건우 윤서진 유하연 김 울 임준우 한세아  
장려상 : 김지아 김하윤 윤동원 오승아 김보영 남재은
- **중등부**  
사랑상 : 최영은(영어성경) / 믿음상 : 윤서현(영어성경) / 소망상 : 김성주(영어성경) / 장려상 : 임하람 배은찬 김서연 최연수 이시우 김도운 조연우 임라임 신동혁 이윤익 장유정 백하은 한예준 김은송 문영은 이시연 정은채 주하은(영어성경)
- **고등부**  
믿음상 : 박주혁 윤동현 김형준 이인애 임세아 소혁 임하린 정은지 장해운 장유선 윤서영 유성결 박유진  
소망상 : 한상욱 문은영 정원석 송인혁 김가은 김수연 손영희
- **일반부**  
대상 : 노문환(영어성경) 이미송 김진달 / 사랑상 : 장정화 손태현 백도환 박상훈 전광환 유외숙 김애리 권진순  
믿음상 : 정희자 석춘희 최정숙 허경화 박혜정 유미영 양미숙 전인숙 송미정 박민숙 최종금 석상화 최종희  
소망상 : 최옥경

계: 117명

##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11월 16일(수), 교회는 지난 바자 수익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대치동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대치1동에 기부하였다. 이 기부금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기탁되었다.

##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

11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재단이 주최하는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가 11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지역예술인으로 우리 교회 장윤식 집사가 기타연주를, 아카펠라그룹 다이아와 코러스 메리헤르츠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음악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과 평소 학교와 학원 학업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새힘과 비전을 주는 취지로 준비된 음악회이다.

또한 전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평소 교회에 들어올 계기가 없었던 대치동 주변의 청소년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교회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음악회이다. 청소년들의 문화코드에 맞는 노래들로 준비된 이번 음악회에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

2022. 11. 27.(주일) 오전 9시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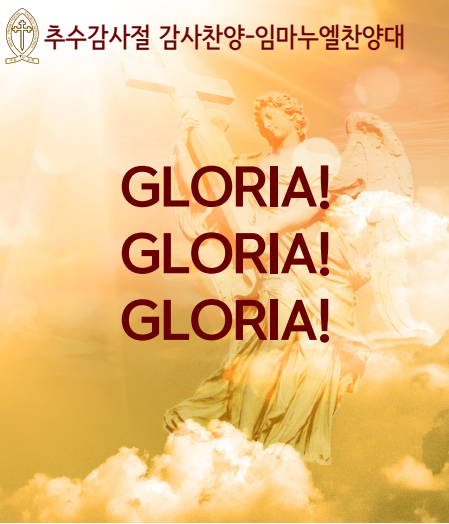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지역예술인  
장윤식



코러스  
메리헤르츠



추수감사절 감사찬양-임마누엘찬양대

**GLORIA!  
GLORIA!  
GLORIA!**



**서은석 장로**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살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 올 한해 서울교회의 여러 사역 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울교회 설립 3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임마누엘찬양대와 청년부가 연합하여 추수감사절 감사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임마누엘찬양대는 'GLORIA! GLORIA! GLORIA!'를 주제로 먼저 모차르트 대관식 중 '글로리아, 주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곡중 솔

로는 소프라노 장하영 선생, 알토 주하민 선생, 테너 오세원 선생, 베이스 정주원 선생이 담당합니다.

두 번째 곡은 David T. Clydesdale 편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특송으로 소프라노 서주희 선생, 테너 이상규 선생이 담당합니다.

세 번째 곡과 네 번째 곡은 '감사축제 찬송', 존 루터의 '글로리아'로 Classic Arts Brass가 특별출연합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찬양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 사명자대회

**세상 끝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



**이원석 집사**  
(2022 사명자  
대회 재정분과)

매년 11월 이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듣지 않을 수 없지만 역시 2022년도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냉전 종식 후 개선되었던 개방주의, 자유주의 등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간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면서 각 개인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는 지 정답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열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전과 같았으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올바른 방향을 간구했겠지만 갈수록 신앙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약해지며 대중은 하나님을 떠나 신자유주의와 무신론이 대세가 된 현재는 각자가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개방화된 나라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았을 때 10명의 의인의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은 바로 우리가 의인임을 자처할 수 있도록 이 죄 많은 세상

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음을 압니다.

바로 2022년 사명자대회가 총 50일 기간 중 이제 마지막 1주일만 남겨두고 마지막 스펀트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께서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이어가면서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이사야 6:8)”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지 빨리 분별하길 바라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은 지금 밤새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하필 올해의 사명자대회 주제가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이사야 6:8)”일까요?

너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9일(토)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를 보면서 올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서양미신인 할로윈을 즐기려고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정말 이 참사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서지 않아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요?

우리는 더욱 무겁고 책임 있는 마음으로 올해 사명자대회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더욱 확실해지지 않을까? 우리 남은 일주일 마지막 특별새벽기도 기간 더욱 뜨거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직 우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전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 때 도 이 나라의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을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도 않고 단지 귀찮아 했을 뿐입니다. 왜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나고...

자! 우리는 처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교사들의 용기를 생각하면서 올해 사명자대회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자! 더더욱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서울교회를 떠난 분들을 다시 한번 서울교회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이 세상 끝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여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여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에스더전도회(회장 : 전광환 권사)의 노방전도



2022 성경암송을 마치고

## 에스더전도회와 함께 한 은혜의 시간



전인숙 권사  
(에스더전도회)

살롱~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암송을 하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외우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때 참 많이 긴장했었던 감정이 기억납니다.

올해 저희 에스더전도회는 14분이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개인사정으로 곤란을 겪으시면서도 결국 해냈다는 감동과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등불이요 빛 되시며 생명의 길 되신 말씀

을 마음에 새겨보니 용기와 사랑과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성령충만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에스더 회원분들과의 친교의 시간이 즐거웠고, 몰랐던 분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더욱 잘 알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은혜와 축복을 비처럼 받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에스더 회원분들의 노고를 함께 함으로 극복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 성경암송을 마치고

##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김에리 권사  
(한나전도회 회장)

매년 찬양예배 때 시행되어 왔던 성경암송대회는 저와 무관한 보고 듣는 행사였습니다. 어르신이 읊조릴 때는 신기하고, 교사들이 할 때는 든든하고, 중·고등부가 외울 때는 기특하고, 어린이가 외울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김진달 집사님이 여전도회 4명 남선교회 4명이 잠언 1장-8장까지 성경암송을 계획하신다고 권하셨습니다.

"처다만 보고 부러워만 말고 한 번 해 봐. 더 나이들기 전에 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주님은 부러움에 바라만 보는 제게 집사님을 통해 권유하신 거 같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고는 싶는데...하며 함께 할 3명의 권사에게 제안하니 첫마디가 한결같이 암기한 적이 언제



적인데 못한다고 자신 없다며 마다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주님이 해 보라고 하셨으니 해 봅시다. 나이 들면 더 어려워요." 마지못해 시작은 했지만 우리는 순서가 엇갈리고 조사와 어미가 틀리고 헛갈리기를 거듭했고 반복과 연상과 필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

니다. 그러는 동안 단어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마음판에 그어지고 새겨져 갔습니다. 말씀을 곱씹으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또 박포박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는 것 원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며 손을 잡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호산나대학,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훈련견 의료지원 및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호산나대학(학장 이동귀)은 2일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와 발달장애인의 애견관련 전문인 양성을 위한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 의료지원 및 공동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애견케어학과 학생들의 현장견학, 실습 지원 △반려동물 건강주치의 지정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예방 △훈련견 의료지원 △각종 캠페인 및 상호 정보 교류 등의 공동협력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평생 도움을 받아야 할 줄 알았던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애견교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최영민 회장(좌), 호산나대학 이동귀 학장(우)

육을 받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애견 매개치유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인상적

이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수의사회는 공익 활동을 하는 애견센터 내 훈련견을 위한 의료 지원은 물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발달장애인 취업사관학교인 호산나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종으로 애견관련 보조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 애견케어학과를 국내 최초로 개설해 학생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이론과 실기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해 반려견 체험, 동물매개치유프로그램, 반려견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022년도 호산나대학 취업자 캠프 개최

호산나대학에서는 10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취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자 캠프를 진행하였다. 취업자 캠프에 참가한 60여 명은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휴가를 내어 모교를 방문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그동안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취업생들이 모여 행사를 즐기고 추억을 나누었다.

취업생 환영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이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후배들은 평소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선배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취업자 캠프에 참가한 성동제(9회, 서울현대요양병원) 회원은 “취업자 캠프 동안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직장에 복귀하여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호산나인이 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호산나대학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와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위해 취업자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취업자 모임, 캠프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동 정

- 특남 : 9교구 박재영 성도 · 연도형 성도 가정 (박동우 집사 · 백승경 권사 장녀) 11월 8일
- 특남 : 안용곤 목사 · 고영미 사모 가정 (쌍둥이) 11월 15일
- 식사 · 과일 제공  
9교구 나기태 권사  
2교구 김영표 집사 권소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 떡 제공: 교회 (추수감사절을 감사드리며)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2. 서울교회 31주년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며, 새로운 30년 부흥의 터전을 잘 닦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지와 후원 농어촌교회를 지켜 주소서.
3. 팬데믹과 경제 불황, 갖가지 사고로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되고, 한반도 지역은 복음화된 통일국가 이뤄지도록 역사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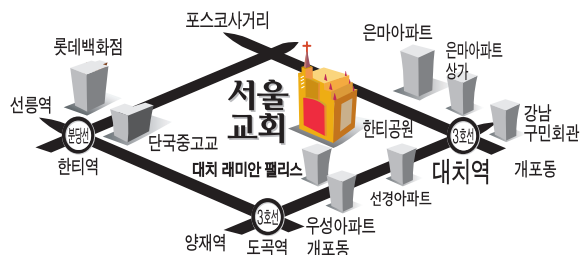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21일	월	롬 6:1-8:30		눅 1-4	
11월22일	화	롬 8:31-11:36		눅 5-8	
11월23일	수	롬 12-16		눅 9-11	
11월24일	목	고전 1-3		눅 12-16	
11월25일	금	고전 4-7		눅 17-20	
11월26일	토	고전 8:1-10:22		눅 21-24	
11월27일	주일	고전 10:23-12:31		요 1-4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